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의 특성별 성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원

The Effect of Consulting and Funding Support by Characteristics of Small Business Owner Prospective Entrepreneurs on Performance

전덕영

Deok-Young Jeon*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는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특성별 성과를 분석함에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도운 예비창업자 500개 업체의 사업계획서 작성 등 1단계 컨설팅, 창업 후에 창업자금과 2단계 컨설팅 자료를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컨설팅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이 총자산회전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자기자본비율, 목표순이익 등이며,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총자산(창업소요 자금)이다. 이는 남성 창업자가 목표순이익을 높게 설정하여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창업비용을 적게 지출하여 총자산회전율을 높임으로써 소유자산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컨설팅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이 매출액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총자산(창업소요 자금), 자기자본비율, 목표순이익, 동업종 경험 등이다. 이는 동업종 경험이 풍부한 남성 창업자가 규모 있는 총자산,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지니고 목표순이익을 높이면 창업하여 경영할 때 매출액이 증대함을 시사한다. 셋째,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컨설팅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이 종업원 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총자산(창업소요 자금), 목표순이익, 동업종 경험, 신용관리 역량(등급) 등이다. 이는 동업종 경험이 풍부한 소상공인 예비창업자가 규모 있는 총자산을 지니고 목표순이익을 높여 신용관리 역량을 함양하면 창업하여 경영할 때 일자리 수 창출에 기여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창업컨설팅, 정책자금, 재무성과, 고용성과

* 서울신용보증재단 책임전문위원, 경영학 박사

Ⅰ. 서 론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는 창업의 성공률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인센티브와 관련이 있다(Partridge et al., 2019). 정부의 정책자금은 새로운 사업을 형성하는 창업기업의 금융위험을 낮추고 경영활동을 촉진하며, 수익성 향상을 도와 사업확장 기회를 제공한다. 창업기업이 성장하면 고용을 창출하므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Dobbs and Hamilton, 2007).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정책자금의 전략적 배분은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고 미래경쟁력을 강화하는 창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Peter et al., 2018).

정책자금의 당위성은 정책목적성, 시장실패(mar- ket failure) 등과 관련된다. 금융중개 역할을 하는 민간금융기관의 시장실패 원인은 정보비대칭성에 기인한 신용할당(credit rationing)과 소상공인 등의 외부효과(externality)에 있다. 소상공인 등과 관련한 정책자금의 시장실패는 정보비대칭성에 따른 신용할당 문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다. 즉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 19)가 진행되어 소상공인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비교적 풍부한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어도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은 높은 발행금리를 지불할 의향이 있더라도 자금 확보가 어려운 현상을 들 수 있다.

창업은 일반 중소기업, 첨단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공인, 소상공인 등 그 영역이 다르고 업종, 규모, 범위, 기술수준 등이 상이하다. 정부는 상이한 영역에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개 규모가 적고 영세한 소상공인을 배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준비된 창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예비창업자는 창업 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창업정보를 수집한다. 정부는 불확실한 창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도록 자금, 교육 등을 종합하여 지원하고 있다(어윤선, 2019).

선행연구는 소상공인의 창업지원에 대해 여러 변수를 가지고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소상공인 창업지원의 재무성과, 비재무성과를 다룬 연구(Angeles et al., 2019; 임현철·노유진, 2016; 김영문·강태균, 2019; 류창규 등, 2019), 예비창업자 지원의 비재무성과에 관한 연구(서성열 등, 2019; 이지안·안영식, 2019; 어윤선, 2019; 정해준 등, 2019)가 있다. 최근에는 창업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부문에서 일자리창출의 핵심원동력으로 간주되면서 창업과 고용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도 있다(정해준 등, 2019; 정경희, 2020).

소상공인 창업지원과 관련한 실증적 연구는 Karadag(2017), Le Trinh(2019), 어윤선(2019) 등의 연구가 있으나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컨설팅과 정책자금 지원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초기 연구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전부터 창업 후까지 창업컨설팅과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실질자료를 가지고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특성이 매출액, 종업원 수 등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면 다양한 흥미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컨설팅과 정

책자금을 지원할 때 예비창업자 특성에 따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Le Trinh(2019)은 일반적인 창업자의 창업지원정책과 관련한 독립변수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는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의 창업지원정책과 관련한 요인을 독립변수로 선정한 차별성이다. 둘째, Karadag(2017)은 비재무성과를 경영성과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는 총자산회전율, 매출액, 종업원 수 등 재무성과 및 비재무성과를 경영성과의 종속변수로 선정한 차별성이다. 셋째, 어윤선(2019)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본 연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창업컨설팅과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예비 소상공인의 실질데이터를 사용한 자료조사 방법의 차별성이다.

본 연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전부터 창업 후까지 창업컨설팅과 정책자금을 연계한 지원이 기여한 경영성과를 조명해 보고 창업지원에 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특성별 창업지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면 국가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의 정책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창업컨설팅 지원과 정책자금을 논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설계를 하며, 가설을 검증하는 실증분석을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실무적 제언을 하고 결론을 맺는다.

Ⅱ. 선행연구

1. 소상공인 창업컨설팅 지원 연구

Karadag(2017)은 터키에 있는 소상공인 등 기업을 대상으로 업력, 업종, 기업가의 교육수준 차이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창업초기 단계에서 금융자원, 경영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기업이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고 해결해야 하는 창업 후 3~5년 동안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Le Trinh(2019)은 신생 사업자의 성공을 돕는 금융자본, 인적 자본 등의 정부지원 정책을 조사하여 지속 가능한 창업자의 육성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신규 사업자에게 초기 3~5년 동안 컨설팅을 통한 신용, 보증, 조세 등의 인센티브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초기 단계의 신생 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은 신생 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였다.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 정책자금은 단기적으로 기업의 매출 증가에 기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창업교육과 창업컨설팅 등의 정책들이 경영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

김소연 등(2020)은 바람직한 창업생태계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창업초기에 집중된 투자 자금을 중기단계까지 확장하고 창업자를 민간투자와 원활한 매칭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남수희(2005)는 컨설팅 성과요인이 고객만족도에 의존한다고 하였

다. 고객은 컨설팅을 제공받는 기업이며, 기업의 만족도가 컨설팅 성과를 결정한다고 강조하였다. 어윤선(2019)은 예비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인 위험감수성과 혁신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위험감수성이 혁신성과 결부되는 것은 창업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존 사업자의 제품이나 서비스 시스템을 혁신화 시키기 때문이다. 즉 고객 관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객관적으로 도입해야 하므로 고객이 요구하는 혁신적인 요소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진출하고자 하는 상권에서 실패하는 창업이 된다. 여기에 창업컨설팅의 역할이 있다. 창업컨설팅을 통해 창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창업자를 도와줄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가 형성된다. 김영문과 강태균(2019)은 소상공인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소상공인의 경영관리 능력, 경영서비스 수용 태도는 매출액, 순이익, 경영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으나, 소상공인의 신용상태는 매출액, 순이익, 경영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이 없음을 보고하였다. 성옥석과 박승락(2015)은 소상공인이 창업 전에 창업자의 특성을 충분히 검토해 이를 반영한 창업목표와 사업계획 등의 수립이 실패를 방지하는 준비된 창업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창업 후에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창업 초기의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상 나타나는 문제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경영성과를 창출해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연구

정영순(2008)은 지원을 받는 규모가 영세한 창업소상공인의 경제적 성과인 월 매출액이 그렇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보다 적으나 월 순이익은 큰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영세한 규모의 소상공인 창업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사업운영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한다. 즉 규모가 영세한 창업소상공인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부족하고 생산관리 역량이 미흡하므로 이들의 애로요인을 반영한 적극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Khan 등(2020)은 자원기반 관점(resource-based view)에서 금융과 자본구조, 자본구조와 사회경제적 성과, 금융과 사회경제적 성과 사이 부분적이고 간접적인 긍정 관계를 규명하였다. Foster (2017)는 미국 중서부의 86개 소상공인을 연구하였다. 예산의 수립과 통제, 업력으로 소상공인의 재정상태를 예측할 수 있음을 밝혔다. 계획의 주요 수단인 예산을 올바로 수립하지 못하면 사업실패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예산의 수립과 집행이 소상공인의 재무건전성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Yoshino와 Taghizadeh-Hesary(2019)는 신용보증 제도가 소기업 대출의 일부를 보장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신용보증은 소기업과 은행 사이 정보비대칭성 격차를 축소해 소기업 대출금액을 증가시킨다. Cornée(2019)는 프랑스 389개 소액대출 자료를 분석해 불투명한 차입자일수록 연성정보가 경성정보보다 신용디폴트 예측 값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연성정보가 비용-편익 분석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강형구 등(2017)은 정책자금과 관련하여 불완전 계약이론에 기초한 공급자(집행기관)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즉 정책자금에서 발생하는 불완전 계약의 문제를 해결해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면 법률에 근거

한 권한 설정과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 전문성 확보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3. 소상공인 경영성과 연구

일반적으로 경영성과는 재무적 자료와 비재무적 자료를 분석해 기업의 경영상태를 종합해서 본다. 대개 기존연구는 재무적 자료, 비재무적 자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석해 왔으나 최근에는 재무적 자료의 객관화가 잘되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 혼용해서 분석하고 있는 추이이다. 재무적 자료는 매출액, 수익성, 투자수익률, 시장점유율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비재무적 자료는 고용창출, 창업만족도, 효과성 등으로 측정한다(Hanks and Chandler, 1994; 류창규 등, 2019; 정경희, 2020).

Gerba와 Viswanadham(2016)은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소기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소기업의 경영성과 측정을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통합하였고, 이 방법을 많은 학자들이 선택한다고 주장하였다. Mateut(2018)는 동유럽, 중앙아시아 30여개 국가의 11,998개 기업 재무자료를 분석하였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자금지원이 기업 혁신활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금융제약이 있는 기업은 금융제약이 없는 기업에 비해 경영성과가 낮다고 보고하였다. 김소연 등(2020)은 창업환경과 기업환경이 우수한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창업생태계의 요소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Isenberg(2010)가 주장한 창업생태계의 6가지 요소인 정책, 금융, 지원, 인적자원, 시장, 문화를 프레임워크로 구성해 연구하였다. 전덕영과 윤병섭(2019b)은 창업자금 지원이 소상공인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창업자금 지원요인인 자기자본비율, 임차료 등이 총자산회전율에, 음식점 업종과 자기자본비율이 총자산순이익률에, 보증금, 권리금 등이 매출액순이익률에 유의한 정(+)의 값을 나타내므로 창업자금 지원이 재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Hernandez-Canovas와 Martinez-Solano(2007)가 스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금융기관과 단일 관계를 맺는 중소기업이 다수 관계를 맺는 중소기업보다 이자상승률이 낮고 재무적 이점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Castaño 등(2016)은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창업교육과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투자가 창업성과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곽규태 등(2018)은 정부 정책이 스타트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지원 수단, 대상 그리고 방식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정책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기업의 고용과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창업자금융자, 창업교육, 기술개발지원과 사업화 등의 자원을 창업기업에 직접 이전해 주는 것이 창업기업의 성과 증진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정경희(2020)는 초기 창업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업종 및 성장단계 조절효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매출액은 창업자금 규모가 클수록 증가하였으며, 창업멘토링은 매출액 증가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인프라의 경우 지원과 미지원 모두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보여주었다.

Schoar(2010)는 창업의 목적을 기회형 창업과 생계형 창업으로 구분하였다. 기회형 창업

은 사업 목적을 기업성장에 집중하므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낸다(Acs, 2006). 생계형 창업은 기업성장이나 혁신활동보다는 의식주 등의 생계유지에 관심이 크므로 대폭적인 고용확대로 연결하기 어렵다(Acs, 2006; Block and Wagner, 2010; Baptista and Preto, 2011; 정해준 등, 2019). 김정홍 등(2015)은 기술창업기업의 특성과 고용창출 요인을 연구하였다. 기술창업기업은 다른 창업기업에 비해 시간이 갈수록 고용증가 효과가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고용창출에는 금융자산 확보 여부, 기술창업기업 여부, 수도권 소재 여부 등이 중요한 요인임을 회귀분석으로 확인하였다. 우리나라는 생계형 창업이 63%를 차지하며, 영국 30%, 미국 26%, 일본 22%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김보경, 2015).

4. 선행연구 시사점과 본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소상공인 창업컨설팅 지원 연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연구, 소상공인 경영성과 연구 등으로 나눠 정리하였다.

Karadag(2017)은 기업이 창업 후 3~5년 동안 직면하는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고 해결해 살아남는 방법은 금융자원, 경영교육 및 컨설팅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규모가 영세한 창업소상공인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부족하고 생산관리 역량이 미흡하므로 이들의 애로요인을 반영한 적극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Cornée(2019)의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Cornée(2019)는 프랑스 소상공인의 소액대출 자료를 분석해 불투명한 차입자일수록 연성정보가 경성정보보다 신용디폴트 예측 값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연성정보가 비용-편익 분석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현장 친밀도와 이해도를 증진할 수 있는 연성정보를 활용해 정책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발굴하므로 연성정보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중요하다. Stein(2002)은 대형화된 금융기관이 연성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시장실패 혹은 미완결로 귀결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영성과는 재무적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다. 하지만 재무적 자료의 객관화가 잘되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 혼용해서 분석하고 있는 추이이다. 재무적 자료는 매출액, 수익성, 투자수익률, 시장점유율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비재무적 자료는 고용창출, 창업만족도, 효과성 등으로 측정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시사점을 토대로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컨설팅과 정책자금을 지원하면 경영성과가 향상되는지를 다룬 연구가 아직 많지 않음에 착안하여 연구방향을 설정하였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전부터 창업 후까지 창업컨설팅과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는 실질자료를 가지고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특성이 총자산회전율, 매출액, 종업원 수 등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Table 1은 본 연구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를 변수별로 요약한 것이다.

Table 1. Summary of Variables for Prior Research in Korea

Researcher	Sample	Period	Sample Number	Data	Analysis	Variables Adopted by Prior Research					
						Start-up	Funding	Education	Consulting	Financial Performance	Employment Performance
강형구·빈기범·한병석(2017)	SME	2017	-	KOSME Data	Policy Improvement		O				
곽규태·천영준·최세경(2018)	Start-up Company	2010~2015	49,501	SIMS Data	Panel Regression	O	O	O		O	O
김소연·조민경·이무원(2020)	Entrepreneur	2020	23	Interview, Survey	Qualitative Research	O					
김영문·강태균(2019)	Small Business Owner	2019	165	Survey	Regression		O	O	O	O	
김창봉·이승현(2017)	Entrepreneur	2016	142	Survey	Structural Equations	O	O	O	O	O	O
류창규·박송춘·이상호(2019)	Small Business Owner	2018	400	Survey	Path Analysis		O	O	O	O	O
박상문·이미순(2019)	Start-up Company	2013	1,077	Enterprise Data	Regression	O				O	O
서성열·윤종록·임아름(2019)	Prospective Entrepreneur	2018	550	Survey	Path Coefficient,	O	O	O	O		
성옥석·박승락(2015)	Entrepreneur, Customer	2013~2014	212	Survey	Structural Equations	O	O	O	O		
어윤선(2019)	Prospective Entrepreneur	2019	242	Survey	Regression	O	O	O	O		
이정승·임영준·최성우(2020)	Start-up Company	2017	201	Survey	Regression	O				O	O
이지안·안영식(2019)	University Student	2018	373	Survey	Locus for Focus Model	O		O			
임현철·노유진(2016)	Small Business Owner	2016	308	Survey	Regression	O	O	O	O	O	
정경희(2020)	Start-up Company	2019	297	Actual Data	Regression	O	O	O	O	O	O
정해준·김용신·정두희(2019)	Prospective Entrepreneur	2018	353	Survey	Regression	O	O				O
홍대웅·전병훈(2019)	Support Policy	2009~2019	-	Policy Data	Policy Analysis	O	O	O	O	O	O
본 연구	Prospective Entrepreneur	2016~2018	500	SCGF Data	Regression	O	O	O	O	O	O
Total						14	13	12	10	10	9

Ⅲ. 연구설계

1. 분석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전 예비창업자단계부터 창업 후 3년 이내까지 창업컨설팅과 창업자금을 단계별로 구분하되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창업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500개 업체의 실질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Sample Enterprises

Variable	Category	Sample	%	Variable	Category	Sample	%
Start-up Preparation Period	within 1 Month	5	1.0	Industry Experience	within 1 Year	95	19.0
	over 1 Month	5	1.0		over 1 Year	48	9.6
	over 3 Month	36	7.2		over 3 Year	60	12.0
	over 6 Month	96	19.2		over 5 Year	114	22.8
	over 12 Month	358	71.6		over 10 Year	183	36.6
Target Net Income	2~3 Million Won	60	12.0	Non-bank Loan	None	172	34.4
	3~5 Million Won	182	36.4		1~2 Case	32	6.4
	over 5 Million	62	12.4		over 3 Case	296	59.2
	over 7 Million	81	16.2	Industry	Restaurant Business	156	31.2
	over 10 Million	115	23.0		Wholesale and Retail	138	27.6
Founder Age	under 30 Years Old	22	4.4		Service Industry	153	30.6
	under 40 Years Old	167	33.4		Other Industry	53	10.6
	under 50 Years Old	172	34.4	Number of Employee	under 3 People	217	43.4
	under 60 Years Old	97	19.4		under 7 People	166	33.2
	over 60 Years Old	42	8.4		under 9 People	93	18.6
Gender	Male	260	52.0		over 10 People	24	4.8
	Female	240	48.0	N	500		

먼저, 사업자등록 전 실질자료는 예비창업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표 등을 검토해 평가한다. 사업계획서, 사업수행능력평가표는 성별, 연령, 창업준비 기간, 동업종 경험, 신용관리 역량, 비은행대출, 총자산,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목표순이익 등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창업자가 창업

자금을 신청하면 현장실사 후 창업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즉 사업자등록 후 창업자금 지원 시점 창업컨설팅 결과보고서에 총자산, 매출액, 종업원 수 등의 자료를 작성한다. 본 연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창업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의 사업자등록 전 자료와 사업자등록 후 창업자금 지원 시점 자료를 실증분석에 사용한다. 본 연구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의 창업준비 기간은 12개월 이상이 71.6%이며, 목표순이익은 300~500만원이 36.4%로 가장 많고, 동업종 경험은 10년 이상 36.6%, 상시 종업원 수는 3인 이하 43.4%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동업종 경험이 10년 이상이나 퇴직 또는 휴폐업하였고, 상시 종업원 수 3인 이하로 영세하며, 은행 등 1금융권이 아니라 2금융권을 활용할 정도로 담보물이 취약하거나, 저금리 자금을 활용하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목표순이익을 낮게 책정하는 등 전형적인 생계형 창업임을 보여주고 있다.

2. 연구가설과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소상공인이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컨설팅과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동원한 자원으로 활발한 경영활동을 할 때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특성에 따라 총자산회전율, 매출액, 종업원 수 등이 차별적으로 향상되는지 분석함에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자금 지원 관점에서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특성에 따라 총자산회전율, 매출액, 종업원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본 연구의 가설과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의 컨설팅과 자금 지원이 총자산회전율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의 컨설팅과 자금 지원이 매출액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의 컨설팅과 자금 지원이 종업원 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의 컨설팅과 정책자금 지원이 총자산회전율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 회귀모형은 식 (1)이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의 컨설팅과 정책자금 지원이 매출액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 회귀모형은 식 (2)이다. 그리고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의 컨설팅과 정책자금 지원이 종업원 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 회귀모형은 식 (3)이다.

$$ATO = \alpha_0 + \beta_1 GEN + \beta_2 AGE + \beta_3 PPT + \beta_4 SIE + \beta_5 CRD + \beta_6 NBL + \beta_7 CAP + \beta_8 BIS + \beta_9 DBR + \beta_{10} TNI + \epsilon_i \quad \cdots\cdots (1)$$

$$SAL = \alpha_0 + \beta_1 GEN + \beta_2 AGE + \beta_3 PPT + \beta_4 SIE + \beta_5 CRD + \beta_6 NBL + \beta_7 CAP + \beta_8 BIS + \beta_9 DBR + \beta_{10} TNI + \epsilon_i \quad \cdots\cdots (2)$$

$$EMP = \alpha_0 + \beta_1 GEN + \beta_2 AGE + \beta_3 PPT + \beta_4 SIE + \beta_5 CRD + \beta_6 NBL + \beta_7 CAP + \beta_8 BIS + \beta_9 DBR + \beta_{10} TNI + \epsilon_i \quad \cdots\cdots (3)$$

여기서,

ATO	: 총자산회전율(%)	CRD	: 신용관리 역량(등급)(등간척도)
SAL	: 매출액(log)(월평균 매출액)	NBL	: 비은행 대출(더미)(유: 1, 무: 0)
EMP	: 종업원 수(명)	CAP	: 총자산(log)(창업소요자금)
GEN	: 성별(더미)(남성: 1, 여성: 0)	BIS	: 자기자본비율(%)
AGE	: 창업자의 연령(세)	DBR	: 부채비율(%)
PPT	: 창업준비 기간(개월)(등간척도)	TNI	: 목표순이익(더미)(고: 1, 저: 0)
SIE	: 동업종 경험(년)(등간척도)	ϵ_i	: 오차항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종속변수는 총자산회전율, 매출액, 종업원 수 등의 성과를 사용하였다. 총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것이다. 총자본회전율이라고도 하며, 소유자산의 효과적 이용을 측정하는 활동성비율이다. 총매출액은 소상공인의 신규 창업, 기존 점포의 영업 지속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이다. 종업원이란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직원·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해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본 연구의 종업원은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생 등을 제외한 상시 종업원을 말하며, 종업원 수는 창업자를 제외한 상시 종업원 수이다.

독립변수는 성별, 연령, 창업준비 기간, 동업종 경험, 신용관리 역량, 비은행 대출, 총자산,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목표순이익 등의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특성별 요인을 사용하였다. 성별은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의 성별은 남성 1, 여성 0으로 한 더미변수를 사용한다. 연령은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의 연령을 실수(實數)로 측정한다. 창업준비기간은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의 창업준비 기간을 1개월 이내, 1개월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등 5구간의 등간척도로 구분한다. 동업종경험은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의 동업종 경험을 1년 이내,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등 5구간의 등간척도로 구분한다. 신용관리역량은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의 신용관리 역량을 매우 불량, 불량, 보통, 양호, 매우양호 등 5구간의 등간척도로 분류한다. 창업소요 자금, 즉 총자산은 실수(實數)이며, 이례치 효과를 낮추기 위해 log값으로 한다. 자기자본비율은 자본구조의 레버리지를 분석하기 위한 재무비율이다.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자기자본비율은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로 %로 나타낸

다. 부채비율은 부채비율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비교해 볼 때 자기자본 대비 타인자본 충당 비율로 %로 나타낸다. 목표순이익은 창업 전에 창업 목표를 담은 사업계획서에서 목표 순이익을 설정한 것이다. 사업에 대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창업을 준비하고 실행한다는 지향점이 있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의 목표순이익이 높은 경우 1, 낮은 경우 0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사용한다. Table 3은 주요 변수의 지수 또는 계산식을 종합해 정리하고 있다.

Table 3. Definition of Variables

Variable		Description	Unit
Dependent Variable	Total Asset Turnover Ratio	Annual Sales Amount/Total Asset	Ratio, %
	Sales Amount	Average Monthly Sales Amount	Real Number (實數), Log
	Number of Employee	Number of Permanent Employee(people)	Real Number (實數)
Independent Variable	Gender	Male(1), Female(0)	Dummy Variable
	Age	Age(years old)	Real Number(實數)
	Start-up Preparation Period	within 1 Month(1), over 1 Month(2), over 3 Month(3), over 6 Month(4), over 12 Month(5)	Interval Scale
	Industry Experience	within 1 Year(1), over 1 Year(2), over 3 Year(3), over 5 Year(4), over 10 Year(5)	Interval Scale
	Credit Management Capability	very Bad(1), Bad(2), Normal(3), Good(4), very Good(5)	Interval Scale
	Non-bank Loan	Existence(1), Nonexistence(0)	Dummy Variable
	Total Asset	Funds used for start-up	Real Number(實數), Log
	Equity Capital Ratio	Equity/Total Capital	Ratio, %
	Debt Ratio	Outside Capital/Equity	Ratio, %
	Target Net Income	High(1), Low(0)	Dummy Variable

Note: The dependent variable(sales amount, number of employee) is expressed as the real number acquired within 3 years of business registration.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

본 연구의 표본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Table 4와 같다.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의 연령은 44.96세, 창업총자산 즉 창업소요 자금은 80,291천원, 자기자본비율은 59.50%, 부채비율은 128.41%로 나타났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Unit	Sample Number	Medium	Standard Deviation	Minimum	Maximum
Total Asset Turnover Ratio	%	500	4.1770	5.3606	.0000	71.2727
Sales Amount(month)	Thousand Won	500	23,896	25,956	2,000	300,000
Number of Employee	People	500	.56	1.133	0	5
Gender	Dummy	500	.52	.500	0	1
Age	Years Old	500	44.96	9.558	24	70
Start-up Preparation Period	Month	500	4.59	.753	1	5
Industry Experience	Year	500	3.48	1.523	1	5
Credit Management Capability	Level	500	4.25	1.053	1	5
Non-bank Loan	Dummy	500	.41	.492	0	1
Total Asset	Thousand Won	500	80,291	76,827	0	580,000
Equity Capital Ratio	%	500	.5950	.2542	.0000	1.0000
Debt Ratio	%	500	1.2841	2.3975	.0000	30.0000
Target Net Income	Dummy	500	.52	.500	0	1

Note: Sales Amount, Total Asset are converted from log to real number.

2. 상관분석

본 연구변수의 상관분석은 Table 5와 같다. 총자산회전율은 매출액, 성별, 동업종 경험, 자기자본비율, 목표순이익 사이 정(+)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매출액은 종업원 수, 성별, 신용관리 역량, 총자산, 자기자본비율, 목표순이익 사이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었다. 종업원 수는 신용관리 역량, 총자산, 자기자본비율, 목표순이익 간 정(+)의 값을 보였으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발견되지 않아 본 연구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This table show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of small business owner prospective entrepreneurs. Total assets, equity capital ratio, and target net income were found to have a high correlation with total asset turnover ratio, sales amount, and number of employee.

	ATO	*SAL*	*EMP*	*GEN*	*AGE*	*PPT*	*SIE*	*CRD*	*NBL*	*CAP*	*BIS*	*DBR*	*TNI*
ATO	1												
SAL	.497***	1											
EMP	.028	.325***	1										
GEN	.160***	.211***	.054	1									
AGE	-.032	-.036	.050	-.056	1								
PPT	.053	.033	.025	.067	-.075*	1							
SIE	.124***	.051	.028	.050	-.030	.303***	1						
CRD	-.020	.113**	.095**	.023	.007	.030	-.032	1					
NBL	-.031	-.021	.007	-.041	.084*	.010	.003	-.421***	1				
CAP	-.296***	.476***	.310***	.042	.061	-.019	-.101**	.218***	-.046	1			
BIS	.121***	.204***	.103**	.025	-.020	.055	.039	.037	-.053	.100**	1		
DBR	-.044	-.177***	-.099**	-.066	-.005	-.020	-.008	-.021	.049	-.158***	-.603***	1	
TNI	.096**	.478***	.203***	.103**	-.026	.116**	.056	.048	-.035	.374***	.234***	-.191***	1

Note: 1) *ATO*: Total Asset Turnover Ratio(%)(Annual Sales Amount/Total Asset), *SAL*: Sales Amount(month)(log), *EMP*: Number of Employee(people), *GEN*: Gender(dummy)(Male: 1, Female: 0), *AGE*: Founder's Age(years old), *PPT*: Start-up Preparation Period(month), *SIE*: Industry Experience(year), *CRD*: Credit Management Capability(level), *NBL*: Non-bank Loan(dummy)(Existence: 1, Nonexistence: 0), *CAP*: Total Asset(log)(funds used for start-up), *BIS*: Equity Capital Ratio(%)(Equity/Total Capital), *DBR*: Debt Ratio(%)(Outside Capital/Equity), *TNI*: Target Net Income(dummy)(High: 1, Low: 0)
2) ***, **, and * are significant at 1%, 5%, and 10%, respectively.

3. 회귀분석

1)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특성별 컨설팅과 자금 지원이 총자산회전율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특성별 컨설팅 및 자금 지원이 총자산회전율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로 분석했다. 총자산회전율은 소유자산의 효과적 이용을 측정하는 활동성비율로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자금 지원 관점에서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특성에 따라 총자산회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음식점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기타업종 등 업종별로 구분하고 그리고 전체업종을 회귀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The Effect of Consulting and Funding Support by Characteristics of Small Business Owner Prospective Entrepreneurs on the Total Asset Turnover Ratio

$$ATO = \alpha_0 + \beta_1 GEN + \beta_2 AGE + \beta_3 PPT + \beta_4 SIE + \beta_5 CRD + \beta_6 NBL + \beta_7 CAP + \beta_8 BIS + \beta_9 DBR + \beta_{10} TNI + \epsilon_i$$

	Restaurant Business	Wholesale and Retail	Service Industry	Other Industry	Total
Constant	3.377	4.025	4.758	5.696	4.883
GEN	.254** (2.250)	.295** (2.473)	.234** (2.131)	.229* (1.946)	.248** (2.119)
AGE	-.024 (-.213)	.104 (.872)	-.072 (-.656)	-.024 (-.215)	.005 (.043)
PPT	-.203* (-1.798)	-.138 (-1.157)	-.214* (-1.949)	-.006 (-.054)	-.103 (-.880)
SIE	.086 (.762)	.091 (.763)	.023 (.202)	.241** (2.161)	.024 (.205)
CRD	.064 (.567)	.102 (.855)	.022 (.193)	.172 (1.542)	.024 (.203)
NBL	.023 (.024)	-.044 (-.369)	-.061 (-.535)	.080 (.717)	-.012 (-.103)
CAP	-.464*** (-4.110)	-.432*** (-3.621)	-.476*** (-4.176)	-.341*** (-3.057)	-.388*** (-3.315)
BIS	.318** (2.187)	.268** (2.247)	.244** (2.140)	.246** (2.205)	.273** (2.333)
DBR	-.088 (-.780)	-.133 (-1.115)	-.084 (-.737)	-.023 (-.208)	-.027 (-.231)
TNI	.351*** (3.109)	.218* (1.828)	.256*** (2.246)	.285** (2.555)	.265** (2.264)
R^2	.385	.293	.258	.322	.278
Adj R^2	.343	.229	.199	.272	.232
F	9.090*** (.000)	8.028*** (.000)	8.661*** (.000)	7.921*** (.000)	10.624*** (.000)
N	156	138	153	53	500

Note: 1) *ATO*: Total Asset Turnover Ratio(%)(Annual Sales Amount/Total Asset), *GEN*: Gender(dummy)(Male: 1, Female: 0), *AGE*: Founder's Age(years old), *PPT*: Start-up Preparation Period(month), *SIE*: Industry Experience(year), *CRD*: Credit Management Capability(level), *NBL*: Non-bank Loan(dummy)(Existence: 1, Nonexistence: 0), *CAP*: Total Asset(log)(funds used for start-up), *BIS*: Equity Capital Ratio(%)(Equity/Total Capital), *DBR*: Debt Ratio(%)(Outside Capital/Equity), *TNI*: Target Net Income(dummy)(High: 1, Low: 0)1, Low: 0)

2) ( ) is a t-value.

3) ***, **, and * are significant at 1%, 5%, and 10%, respectively.

Table 7. The Effect of Consulting and Funding Support by Characteristics of Small Business Owner Prospective Entrepreneurs on the Sales Amount

$$SAL = \alpha_0 + \beta_1 GEN + \beta_2 AGE + \beta_3 PPT + \beta_4 SIE + \beta_5 CRD + \beta_6 NBL + \beta_7 CAP + \beta_8 BIS + \beta_9 DBR + \beta_{10} TNI + \epsilon_i$$

	Restaurant Business	Wholesale and Retail	Service Industry	Other Industry	Total
Constant	3.155	2.408	3.994	7.229	3.851
GEN	.092** (2.773)	.257*** (5.128)	-.039 (-1.272)	.005 (.060)	.117*** (4.418)
AGE	.001 (.030)	.107** (2.135)	-.002 (-.065)	.156* (1.872)	-.002 (-.076)
PPT	-.007 (-.211)	-.009 (-.180)	-.107** (-3.490)	-.040 (-.480)	-.018 (-.680)
SIE	.065* (1.959)	.105** (2.095)	.066** (2.153)	.158* (1.896)	.056** (2.115)
CRD	.016 (.482)	.023 (.459)	.005 (.163)	.023 (.276)	.012 (.453)
NBL	.007 (.211)	.039 (.778)	.025 (.815)	.061 (.732)	.026 (.982)
CAP	.207*** (6.239)	.233*** (4.649)	.146*** (4.762)	.276*** (3.312)	.112*** (4.229)
BIS	.086** (2.592)	.173*** (3.452)	.089** (2.903)	.306*** (3.672)	.093*** (3.512)
DBR	.008 (.241)	.014 (0.279)	.011 (0.359)	.002 (.024)	.011 (.415)
TNI	.151*** (4.551)	.146*** (2.913)	.098*** (3.196)	.416*** (4.992)	.081*** (3.059)
R^2	.331	.300	.345	.334	.372
Adj R^2	.298	.260	.306	.246	.360
F	16.404*** (.000)	12.681*** (.000)	11.390*** (.000)	7.266*** (.000)	29.026*** (.000)
N	156	138	153	53	500

Note: 1) *SAL*: Sales Amount(month)(log), *GEN*: Gender(dummy)(Male: 1, Female: 0), *AGE*: Founder's Age(years old), *PPT*: Start-up Preparation Period(month), *SIE*: Industry Experience(year), *CRD*: Credit Management Capability (level), *NBL*: Non-bank Loan(dummy)(Existence: 1, Nonexistence: 0), *CAP*: Total Asset(log)(funds used for start-up), *BIS*: Equity Ratio(%)(Equity/Total Capital), *DBR*: Debt Ratio(%)(Outside

Capital/Equity), *TNI*: Target Net Income(dummy)(High: 1, Low: 0)
2) ( ) is a t-value.
3) ***, **, and * are significant at 1%, 5%, and 10%, respectively.

Table 6과 같이 전체 업종에서 총자산회전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GEN*), 자기자본비율(*BIS*), 목표순이익(*TNI*) 등이며,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총자산(*CAP*), 즉 창업소요 자금이다. 그리고 이 변수들은 음식점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기타업종 등에서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총자산회전율에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총자산회전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GEN*), 자기자본비율(*BIS*), 목표순이익(*TNI*) 등이며,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총자산(*CAP*), 즉 창업소요 자금으로 각 변수가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목표순이익을 높게 설정하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일수록, 창업소요 자금을 적게 쓸수록 총자산회전율을 높임으로써 소유자산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전체업종에서 볼 때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특성인 성별(*GEN*), 자기자본비율(*BIS*), 목표순이익(*TNI*) 등이 총자산회전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살펴볼 때, 남성이 여성보다 창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큼을 보여준다는 윤성욱과 서근하(2003), 신용보증이 소기업과 은행 사이 정보비대칭성을 줄인다는 Yoshino와 Taghizadeh-Hesary(2019), 정책자금 지원받은 이후가 지원받기 이전보다 유의한 긍정적 재무성과를 실현한다는 백준성과 윤병섭(2013), 총자산회전율이 경영성과를 향상하는 데 기여한다는 노현섭과 김정찬(2007), 조준희와 김찬중(2010), 채광기 등(2011)의 연구를 지지한다. 이러한 긍정적 결과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사업자등록 전 성별, 연령, 창업준비 기간, 동업종 경험, 신용관리 역량, 비은행대출, 총자산,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목표순이익 등 사업계획서 작성과 사업수행능력평가표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창업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적절히 제공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자금 지원 관점에서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특성에 따라 총자산회전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즉 [가설 1]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의 컨설팅과 자금지원이 총자산회전율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된다.

2)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특성별 컨설팅과 자금지원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특성별 컨설팅 및 자금 지원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로 분석했다. 매출액은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 또는 경상적 활동으로부터 얻는 수익으로 소상공인의 신규 창업, 기존 점포의 영업 지속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자금 지원 관점에서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음식점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기타업종 등 업종별로 구분하고 그리고 전체업종을 회귀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과 같이 전체업종에서 매출액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GEN*), 총자산(*CAP*), 즉 창업소요 자금, 자기자본비율(*BIS*), 목표순이익(*TNI*), 동업종 경

험(*SIE*) 등이다. 다시 말하면 동업종 경험이 풍부한 남성이 목표순이익을 높게 설정하고 창업소요 자금을 크게 쓰고도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는 자금 여력을 마련한다면 매출액을 극대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음식점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기타업종 등에서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매출액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총자산(*CAP*), 즉 창업소요 자금, 자기자본비율(*BIS*), 목표순이익(*TNI*), 동업종 경험(*SIE*) 등이다. 동업종 경험 있는 소상공인 예비창업자가 풍부한 창업소요 자금과 든든한 자기자본비율을 가지고 목표 의식을 바탕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실행할 때 매출액이 증대함을 시사한다.

전체업종에서 볼 때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특성인 성별(*GEN*), 총자산(*CAP*), 즉 창업소요 자금, 자기자본비율(*BIS*), 목표순이익(*TNI*), 동업종 경험(*SIE*) 등이 매출액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살펴볼 때, 내부 금융의 중요성을 논의한 Angeles 등(2019)의 연구를 지지한다. 창업 경험이 성과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 을 보인다는 Lamont(1972), Cooper 등(1988), Fairlie와 Robb(2009), Eesley와 Roberts(2012), 배영임(2014) 등의 연구를 지지한다. Lamont(1972)는 경험이 있는 창업자가 그렇지 않은 창업자보다 더 높은 성과를 얻는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고, Fairlie와 Robb(2009)은 창업 전에 유사한 업종 경험이 있으면 경험자본의 축적으로 생존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긍정적 결과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사업계획서 작성과 사업수행능력평가표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창업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적절히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자금 지원 관점에서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즉 [가설 2]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의 컨설팅과 자금 지원이 매출액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된다.

3) 예비창업자 특성별 컨설팅과 자금지원이 종업원 수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특성별 컨설팅 및 자금 지원이 종업원 수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로 분석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자금 지원 관점에서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특성에 따라 종업원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음식점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기타업종 등 업종별로 구분하고, 그리고 전체업종을 회귀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과 같이 전체 업종에서 종업원 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총자산(*CAP*), 즉 창업소요 자금, 목표순이익(*TNI*), 동업종 경험(*SIE*), 신용관리 역량(등급)(*CRD*) 등이다. 다시 말하면 동업종 경험이 풍부한 창업자가 목표순이익을 높게 설정하고 창업소요 자금을 많이 쓰고 신용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다면 채용한 종업원을 영업에 투입하고 관리해 종업원 수를 증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

Table 8. The Effect of Consulting and Funding Support by Characteristics of Small Business Owner Prospective Entrepreneurs on the Number of Employee

$$EMP = \alpha_0 + \beta_1 GEN + \beta_2 AGE + \beta_3 PPT + \beta_4 SIE + \beta_5 CRD + \beta_6 NBL + \beta_7 CAP + \beta_8 BIS + \beta_9 DBR + \beta_{10} TNI + \epsilon_i$$

	Restaurant Business	Wholesale and Retail	Service Industry	Other Industry	Total
Constant	-8.593	-11.288	-5.697	-4.431	-7.701
GEN	.331 (1.582)	.107 (.649)	.012 (.058)	.133 (.375)	.075 (.765)
AGE	.419** (2.003)	.011 (0.067)	.003 (.015)	.003 (.008)	.004 (.041)
PPT	-.090 (-.430)	.029 (.176)	.143 (.691)	-.093 (-.262)	.001 (.010)
SIE	.385* (1.840)	.307* (1.862)	.477** (2.306)	.682* (1.923)	.208** (2.122)
CRD	.435** (2.079)	.395** (2.396)	.451** (2.180)	.705** (1.988)	.184* (1.877)
NBL	.141 (.674)	.068 (.412)	.122 (.590)	.108 (.305)	.103 (1.051)
CAP	.899*** (4.297)	0.601*** (3.645)	.537** (2.596)	.791** (2.230)	.278** (2.836)
BIS	.126 (.602)	.438** (2.657)	.067 (.324)	.144 (.406)	.121 (1.234)
DBR	-.090 (-.430)	-.005 (-.030)	-.008 (-.039)	-.037 (-.104)	-.004 (-.041)
TNI	.519** (2.481)	.472** (2.863)	.460** (2.223)	.756** (2.132)	.192* (1.958)
R^2	.281	.292	.259	.253	.285
Adj R^2	.224	.228	.197	.193	.227
F	3.600*** (.000)	3.519*** (.000)	3.243*** (.000)	3.152*** (.000)	3.383*** (.000)
N	156	138	153	53	500

Note: 1) *EMP*: Number of Employee(people), *GEN*: Gender(dummy)(Male: 1, Female: 0), *AGE*: Founder's Age(years old), *PPT*: Start-up Preparation Period(month), *SIE*: Industry Experience(year), *CRD*: Credit Management Capability(level), *NBL*: Non-bank Loan(dummy)(Existence: 1, Nonexistence: 0), *CAP*: Total Asset(log)(funds used for start-up), *BIS*: Equity Ratio(%)(Equity/Total Capital), *DBR*: Debt Ratio(%)(Outside Capital/Equity), *TNI*: Target Net Income(dummy)(High: 1, Low: 0)

2) ( ) is a t-value.

3) ***, **, and * are significant at 1%, 5%, and 10%, respectively.

그리고 음식점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기타업종 등에서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종업원 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총자산(*CAP*), 즉 창업소요 자금, 목표순이익(*TNI*), 동업종 경험(*SIE*), 신용관리 역량(등급)(*CRD*) 등이다. 동업종 경험 있는 소상공인 예비창업자가 신용관리 역량을 발휘하여 풍부한 창업소요 자금을 가지고 목표 의식을 바탕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실행할 때 종업원 수가 증대함을 시사한다.

전체 업종에서 볼 때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특성인 총자산(*CAP*), 즉 창업소요 자금, 목표순이익(*TNI*), 동업종 경험(*SIE*), 신용관리 역량(등급)(*CRD*) 등이 종업원 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었다. 이를 살펴볼 때, 소상공인 예비창업자가 종업원 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종업원이란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사이 계약에 의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종업원 수는 사세 확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종업원 수가 증가한다는 의미는 주요 영업활동 또는 경상적 활동 등의 업무량이 증가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업이 번창함을 보여준다. Fairlie와 Robb(2009), Yonis 등(2018), 전덕영과 윤병섭(2019a), 정해준 등(2019) 등은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의 종업원 수에 체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했다. Yonis 등(2018)은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기업의 혁신실천, 인적자원 개발, 소기업의 고용창출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근로자를 훈련시키는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확대한다면 정책 개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Fairlie와 Robb(2009)은 경영자 혼자 운영할 때보다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경우 생존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고려한다면 종업원 고용의 긍정적 효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전덕영과 윤병섭(2019a)은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효과가 있으므로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을 할 때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임차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특성별 컨설팅 및 자금 지원이 종업원 수에 미치는 긍정적 결과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표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창업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적절히 제공하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자금 지원 관점에서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특성에 따라 종업원 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즉 [가설 3]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의 컨설팅과 자금 지원이 종업원 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된다.

4)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특성별 성과 요약과 실무적 제언

Table 9는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특성별 컨설팅과 자금 지원이 재무성과(Table 6, Table 7), 고용성과(Table 8)에 미치는 영향을 집계한 것이다. 업종별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9. Summary of Performance of Consulting and Funding Support by Characteristics of Small Business Owner Prospective Entrepreneurs.

Variable		*GEN*	*AGE*	*PPT*	*SIE*	*CRD*	*NBL*	*CAP*	*BIS*	*DBR*	*TNI*
ATO	Total	+**	+	−	+	+	−	−***	+**	−	+**
	Restaurant Business	+**	−	−*	+	+	+	−***	+**	−	+***
	Wholesale and Retail	+**	+	−	+	+	−	−***	+**	−	+*
	Service Industry	+**	−	−*	+	+	−	−***	+**	−	+***
	Other Industry	+*	−	−	+**	+	+	−***	+**	−	+**
SAL	Total	+***	−	−	+**	+	+	+***	+***	+	+***
	Restaurant Business	+**	+	−	+*	+	+	+***	+**	+	+***
	Wholesale and Retail	+***	+**	−	+**	+	+	+***	+***	+	+***
	Service Industry	−	−	−**	+**	+	+	+***	+**	+	+***
	Other Industry	+	+*	−	+*	+	+	+***	+***	+	+***
EMP	Total	+	+	+	+**	+*	+	+**	+	−	+*
	Restaurant Business	+	+**	−	+*	+**	+	+***	+	−	+**
	Wholesale and Retail	+	+	+	+*	+**	+	+***	+**	−	+**
	Service Industry	+	+	+	+**	+**	+	+**	+	−	+**
	Other Industry	+	+	−	+*	+**	+	+**	+	−	+**

Note: 1) *ATO*: Total Asset Turnover Ratio(%)(Annual Sales Amount/Total Asset), *SAL*: Sales Amount(month)(log), *EMP*: Number of Employee(people), *GEN*: Gender(dummy)(Male: 1, Female: 0), *AGE*: Founder's Age(years old), *PPT*: Start-up Preparation Period(month), *SIE*: Industry Experience(year), *CRD*: Credit Management Capability(level), *NBL*: Non-bank Loan(dummy)(Existence: 1, Nonexistence: 0), *CAP*: Total Asset(log)(funds used for start-up), *BIS*: Equity Capital Ratio(%)(Equity/Total Capital), *DBR*: Debt Ratio(%)(Outside Capital/Equity), *TNI*: Target Net Income(dummy)(High: 1, Low: 0)

2) ( ) is a t-value.

3) ***, **, and * are significant at 1%, 5%, and 10%, respectively.

첫째, 총자산회전율, 매출액 등 재무성과와 종업원 수 등 고용성과에 일관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목표순이익이다. 성옥석과 박승락(2015)은 소상공인 창업자가 창업 전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로 창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 창업목표 설정임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창업자가 경영마인드를 갖춘다면 창업에 성공해 성장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소상공인 예비창업자가 창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출과 순이익에 대한 목표의식을 강화하고 창업 전부터 창업 후까지 컨설팅, 자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이행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창업기업이 생존율을 높이고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예비창업자의 업종 경험이 반영된 사업계획과 창업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컨설팅 기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재무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으면 타인자본 비중이 낮아 자금의 안전성과 유동성이 양호하여 재무성과에 기여한다. 즉 유동성 관리가 중요하며, 자금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과잉투자와 같은 비효율적 투자를 지양하고 원활한 현금흐름을 유지하는 위기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예비창업자의 자금 여력, 장단기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등을 심도 있게 조사 및 분석하고 이에 타당한 업종이나 아이템을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총자산이 매출액에 유의한 정(+)의 영향, 총자산이 종업원 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었다. 창업자의 총자산이 많으면 사업 규모를 크게 하거나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업경쟁력을 갖추는 전략을 펼치므로 고용성과에 기여할 것이다. 총자산이 낮을수록 고용성과가 낮으므로 창업자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고용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업종 체험과 고용창출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생산성 복지를 마련하여 직접고용 기회를 증대시켜야 한다.

넷째, 대체적으로 남성 창업자가 여성 창업자에 비해 재무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동업종 경험은 매출액과 고용성과에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관리 노하우와 판매네트워크 등 동업종 경험이 암묵지를 통해 매출액 증대 등 성과 창출을 견인하고 그 성과를 통해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확대재생산의 선순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남성 창업자가 여성 창업자에 비해 동업종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하여 재무성과에 기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남성 창업자가 재무성과를 높이도록 국제적 사업확장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양한 기회 마련으로 소상공인이 글로벌 스케일업에 도전하도록 정책지원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여성 창업자에게 업종 경험과 창업 기회 확대 등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여성 창업 등에 대한 심도 있고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종합적 분석을 통한 실무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는 정보비대칭성으로 시장실패 영역에 있으므로 정책자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대부분은 재무제표가 거의 없고, 재무제표가 있어도 신뢰도가 낮다. 따라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확보가 어렵다.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에 있어 성장성이 있는 창업기업은 연성정보를 기반으로 연속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의 지원 요인인 목표순이익은 창업성과에 긍정적이다. 컨설팅과 자금 지원 단계에서 소상공인 예비창업자가 매출, 순이익에 높은 목표의식을 가지고 창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목표의식을 강화시켜야 한다. 창업 전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해 창업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비창업자에 대해 창업 전부터 창업 후까지 자금, 컨설팅 지원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창업컨설팅을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신규창업은 창업성과 달성에 다양한 어려움을 가져오므로 재무성과와 고용성과가 유지되도록 지원하여야 하지만, 기존 소상공인의 가업승계에도 관심을 가져 가업승계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상속세제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재무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 유지 및 관리가 중요하다. 정부는 정책자금

을 지원할 때 예비창업자의 자금 여력, 장단기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등을 심도 있게 조사 및 분석하고 이에 타당한 업종이나 아이템을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 총자산이 낮을수록 고용성과가 낮으므로 정부는 창업자와 구직자를 연결하고 업종 체험과 고용 창출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생산성 복지를 마련하는 등 고용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환경의 제도적 장벽을 개선하는 정책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국가경제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동업종 경험이 관리 노하우와 판매네트워크 등 암묵지를 통해 매출액 증대 등 성과를 창출하고 그 성과가 종업원을 확충해 고용하는 등 확대재생산의 기반이 된다. 비록 실패한 소상공인이 있더라도 동업종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이들을 수용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 마련과 실행이 요구된다. 재창업 등 실패한 소상공인의 재기방안을 확대해 사회적 자본 손실을 극소화해야 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컨설팅과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예비창업자 특성에 따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창업 전 컨설팅, 창업 후 컨설팅, 창업자금의 지원정책을 이용한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500개 업체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특성별 컨설팅 및 자금 지원이 총자산회전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자기자본비율, 목표순이익 등이며,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총자산, 즉 창업소요 자금이다. 이는 남성 창업자가 목표순이익을 높게 설정하여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창업소요 자금을 적게 지출하여 총자산회전율을 높임으로써 소유자산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특성별 컨설팅 및 자금 지원이 매출액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총자산, 즉 창업소요 자금, 자기자본비율, 목표순이익, 동업종 경험 등이다. 즉 동업종 경험이 많은 남성 창업자가 풍부한 창업소요 자금과 든든한 자기자본비율을 가지고 목표순이익을 높게 설정해 창업을 준비하고 실행할 때 매출액이 증대함을 시사한다.

셋째,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특성별 컨설팅 및 자금 지원이 종업원 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총자산, 즉 창업소요자금, 목표순이익, 동업종 경험, 신용관리 역량(등급) 등이다. 동업종 경험이 많은 소상공인 예비창업자가 목표순이익을 높게 설정하고 풍부한 창업소요자금을 가지고 신용역량을 양호하게 관리하면서 창업을 준비하고 실행할 때 종업원 수가 증대함을 시사한다.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의 컨설팅 및 자금 지원을 창업성과와 연관하여 분석한 연구는 아직

까지 초기연구이다.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의 창업지원 관련 연구의 확산 및 파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향후 연구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첫째, 본 연구는 소상공인 일반창업과 기술창업을 나누지 않고 연구하였다. 정부는 소기업이 투자자금의 위험을 감수하고 기술을 향상시키거나 기술에 투자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Angeles et al., 2019). 따라서 기술 창업기업과 일반 창업기업의 성과를 비교해 분석할 수 있다면 예비창업자에게 기술기반 창업의 중요성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창업지원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소상공인 창업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연구하였다. 소상공인 창업 유형에는 프랜차이즈 창업과 비프랜차이즈 창업이 있다. 프랜차이즈 창업과 비프랜차이즈 창업의 성과를 비교 및 분석한다면 유용할 것이다. 이는 예비창업자의 창업 준비과정이나 정부의 창업지원 활용 판단 자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서울시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나 전국의 예비창업자로 지역과 범위를 확대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는 국가경제와 고용창출에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의 역할을 일반화하고 보다 더 객관화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강형구·빈기범·한병석(2017), “불완전 계약 이론에 기반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새로운 역할”, 한국증권학회지(한국증권학회), 46(3), 623-647.

김창봉·이승현(2017), “창업지원제도가 1인창업자의 행동특성에 따라 창업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한국벤처창업학회), 12(2), 41-54.

남수희(2005), “한국기업의 컨설팅에 대한 만족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한국컨설팅 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경영컨설팅연구(한국경영컨설팅학회), 5(1), 1-26.

노현섭·김정찬(2007),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재무특성 분석”, 국제회계연구(한국국제회계학회), 20, 17-37.

류창규·박송춘·이상호(2019), “소상공인 지원제도가 경영자역량과 재무적성과를 매개로 하여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지(한국창업학회), 14(3), 47-71.

박상문·이미순(2019), “창업경험 특성이 벤처창업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업력의 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한국벤처창업학회), 14(4), 51-62.

배영임(2014), “재창업 기업의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한국벤처창업학회), 9(3), 13-22.

백준성·윤병섭(2013), “정책자금 지원과 재무성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역할”, 기업경영연구(한국기업경영학회), 20(5), 139-158.

서성열·윤종록·임아름(2019), “창업지원시스템에 대한 청년의 인식이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창업의지의 매개효과와 창의적 역량의 조절효과 검증-”, 기업경영리뷰(KNU기업경영연구소), 10(1), 49-67.

서한석(2018), “금융화, 기업의 수익률 그리고 고용성장률”, 유라시아연구(아시아유럽미래학회), 15(4), 103- 130.

임현철·노유진(2016), “외식업 창업 지원서비스가 창업역량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Tourism Research* (한국관광산업학회), 41(4), 273-293.

임희진·김재홍·박지윤(2020),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아시아유럽미래학회), 17(3), 63-102.

전덕영·윤병섭(2019a),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의 일자리창출 효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역할”, 상업교육연구(한국상업교육학회), 33(1), 1-29.

_____·_____(2019b), “창업자금 지원 소상공인의 재무성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역할”, 기업경영연구(한국기업경영학회), 26(4), 113-140.

정경희(2020), “초기 창업기업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창업업종 및 창업성장단계 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한국벤처창업학회), 15(1), 59-70.

홍대웅·전병훈(2019), “글로벌 창업기업 스케일업(Scale- up) 지원 정책 분석을 통한 국내 스케일업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한국벤처창업학회), 14(6), 11-27.

Acs, Z. (2006), “How is Entrepreneurship Good for Economic Growth?”, *Innovations Technology Governance Globalization*, 1(1), 97-107.
DOI: 10.1162/itgg.2006.1.1.97

Angeles, I. T., M. S. P. Calara, A. B. de Guzman (2019), “The Mediating Effect of Microfi- nancing on Access to Finance and Growth of Microenterprises: Evidence from the Philip- pines”,

Journal of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9(1), 1-16.
DOI: 10.1186/s40497-019-0150-x

Foster, T. A. (2017), "Budget Planning, Budget Control, Business Age, and Financial Perfor- mance in Small Businesses", *Walden Disser- tations and Doctoral Studies*, Walden Univer- sity, 1-124.

Gerba, Y., P. Viswanadham (2016), "Performance Measurement of Small Scale Enterprises: Review of the Oretical and Empirical Liter- 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Re- search*, 2(3), 531-535.

Hanks, S. H., G. N. Chandler (1994), "The Impact of New Venture Growth Research on Entre- preneurship Education", *Frontiers in Entre- preneurship Research*.

Hernandez-Canovas, G., P. Martinez-Solano (2007), "Effect of the Number of Banking Relation- ships on Credit Availability: Evidence from Panel Data of Spanish Small Firms", *Small Business Economics*, 28(1), 37-53.
DOI: 10.1007/s11187-005-6704-z

Mateut, S. (2018), "Subsidies, Financial Constraints and Firm Innovative Activities in Emerging Economies", *Small Business Economics*, 50(1), 131-162.
DOI: 10.1007/s11187-017-9877-3

Partridge, M., A. Tsvetkova, S. Schreiner, C. Patrick (2019), "The Effects of State and Local Economic Incentives on Business Start-Ups in the US: County-Level Evidence", *Andrew Young School of Policy Studies Research Paper Series*, (19-02), 1-38.
DOI: 10.2139/ssrn.3376166

Peter, F., O. Adegbuyi, M. Olokundun, A. O. Peter, A. B. Amaihian, A. S. Ibidunni (2018), "Govern- ment Financial Support and Financial Per- formance of SMEs", *Academy of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7, 1-10.

Schoar, A. (2010), "The Divide between Subsistence and Transformational Entrepreneurship", *Inno- vation Policy and the Economy*, 10(1), 57-81.
DOI: 10.1086/605853

Stein, J. C. (2002), "Information Production and Capital Allocation: Decentralized versus Hier- archical Firms", *Journal of Finance*, 57(5), 1891-1921.
DOI: 10.1111/0022-1082.00483

The Effect of Consulting and Funding Support by Characteristics of Small Business Owner Prospective Entrepreneurs on Performance

Deok-Young J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consulting and funding support by characteristics of small business owner prospective entrepreneurs supported by the Seou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first-stage consulting data including the preparation of business plans and the second-stage consulting data of 500 small business owner prospective entrepreneurs helped by the Seou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for three years from 2016 to 2018, before COVID-19. The characteristic factors of small business owner prospective entrepreneurs such as: gender, age, start-up preparation period, industry experience, credit management capability, non-bank loan, total asset, equity capital ratio, debt ratio and target net income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Also, total asset turnover ratio, sales amount and number of employee we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on the performance of each characteristic of small business owner prospective entrepreneurs are as follows. First, the variables in which supporting policy fund through start-up consulting for small business owner prospective entrepreneurs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otal asset turnover ratio are gender, equity capital ratio, and target net income. And a variable that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otal asset turnover ratio is total assets(start-up expenses). This can be judged that the male entrepreneurs, the higher the target net income, the higher the equity capital ratio, and the smaller the start-up expenses, the higher the total asset turnover ratio, thereby effectively using the assets owned.Second, the variables in which supporting policy fund through start-up consulting for small business owner prospective entrepreneurs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ales amount are gender, total assets(start-up expenses), equity capital ratio, target net income, and industry experience. This suggests that if male entrepreneurs with a lot of experience in the same industry have a high total assets, a high equity capital ratio, and a high target net income, sales amount increase when starting and operating a business. Third, the variables in which supporting policy fund through start-up consulting for small business owner prospective entrepreneurs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on the number of employee are total assets(start-up expenses), target net income, industry experience, credit management capability(grade).

<Key Words> Small Business Owner, Prospective Entrepreneur, Start-up Consulting, Policy Fund, Financial Performance, Employment Performance